

■ 한국, 험난한 16강 어떻게 가나?

## 토고 잡으면 '실낱 희망'



■ 대회 5일째 광양구장 경기 결과

## 佛-아이티 승부 못가려

자력 진출은 불가능... 조 3위 와일드 카드 노려야

어차피 자력 진출은 힘들다. 그렇다고 실낱같은 희망만 남았다고 고개를 떨어뜨릴 상황도 아니다.

'안방 청소년 월드컵'에서 2전 전패로 버림 끝에 내몰린 청소년대표팀에게다.

박경훈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대표팀은 21일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코스타리카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해 A조 최하위로 떨어졌다.

18일 개막전에서 페루에 0-1로 진 한국은 홈에서 열린 FIFA 주관대회에서 2연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2전 전패로 승점을 단 한 점도 챙기지 못한 한국은 24일 토고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반드시 이겨 조 3위를 한 다음 와일드카드를 노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토고를 이기더라도 다른 조 결과에 따라 16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승1무(승점 4)가 된 코스타리카는 앞서 토고와 득점 없이 비긴 페루(1승1무)에 골득실에서 앞서 조 1위로 올라섰다. 토고는 2무로 3위.

하지만 16강 진출 희망을 접기는 아직 이른다.

1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부터 참가국이 24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조 3위 여섯 팀 가운데 네 팀이 와일드카드로 16강에 오르는 행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박경훈호의 생존 전략은 24일 토고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토고를 꺾지 못하면 여전히 조 4위에 머무르게 돼 경주의 수를 따질 이유가 없어진다.

토고를 이기면 한국이 1승2패, 토고가 2무1패가 되면서 조 3위 자리는 무조건 확보한다.

그 다음엔 다른 조 3위 팀들의 성적표를 봐야 한다. 2라운드까지 치른 현재로서는 성적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한국이 온종일 16강에 오른다고 앞장서서도 험난할 수밖에 없다.

A조 3위는 대진표상 B조 또는 C조 1위와 맞붙는다. B조 1위와 만날 확률이 7대 3

로 높다. B조 1위는 뉴질랜드, 북한을 상대로 무려 13골을 몰아넣은 브라질이 확실시된다.

한편 2패를 당한 리를 태극전사들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청소년 대표팀 플레이메이커 윤봉가람(부경고)은 21일 코스타리카와 2차전에서 0-2로 패한 뒤 가진 인터뷰에서 "초반에 빨리 골이 안터져 많이 힘들었다"면서도 "아직 토고전이 남아 있다. 이미 끝난 경기는 빨리 잊고 마지막 경기에 초점을 맞춰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후반 중반까지 여러 차례 선방을 펼쳤던 수문장 김승규(현대)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3차전에서는 무실점으로 막아 절대 지는 경기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페인, 울산서 시리아 꺾고 16강 진출

전남 축구 메카인 광양에서 국제축구대회 가 연이어 열리면서 지역 축구팬들이 수준높은 세계축구에 환호하고 있다.

22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2007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 D조 2차전 프랑스와 아이티전이 열렸다.

양팀은 이날 한 골씩을 주고받아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세계 수준의 경기 운영으로 축구장을 찾은 많은 지역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줬다.

광양에선 앞서 지난 19일에도 청소년 축구 예선으로 일본-아이티전과 나이지리아-프랑스전이 열렸고, 오는 25일엔 축구 강국

인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C조 3차 예선전이 예정돼 있다. 또 오는 29일 오후 8시 16강전이 광양에서 열린다.

이 밖에 C조 선두인 스페인은 이날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후반 인저리타임 터진 다니엘 아키노의 결승골로 시리아를 2-1로 눌렀다.

온두라스와 1차전에서 4-2로 승리했던 스페인은 2연승으로 남은 아르헨티나전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2위를 확보, 16강행을 결정지었다.

한편 '4강 신화 재현'을 목표로 내건 청소년대표팀이 충격적인 2연패를 당해

탈락 위기에 몰렸다.

박경훈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대표팀은 지난 21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북중미 다국적 코스타리카에 0-2로 무릎을 꿇었다.

전·후반 내내 공세를 주도하다 후반 40분 교체 멤버 마르코스 우레나에게 통탄의 결승골을 내주고 인저리타임에 제시 페랄타에게 다시 한 골을 헌납했다.

뉴질랜드와 1차전에서 7-0으로 대승한 브라질은 두 경기 13골을 터트리는 막강 화력을 뽐내며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1무1패가 된 북한은 앞서 뉴질랜드를 5-0으로 완파한 잉글랜드(1승1무)에 뒤져 3위로 내려 앉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난 21일 열린 2007 국제축구연맹 17세 이하 월드컵 A조 2차전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서 후반 우레나에게 선취골을 내준 뒤 한국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쓰러져 있다.

박경훈 감독 "체력 저하 패인"

지난 21일 코스타리카에 완패한 청소년 축구대표팀 박경훈 감독이 체력 저하를 패인으로 꼽았다.

박경훈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오늘 경기는 꼭 이겨야 했고 모두 최선을 다했다. 전반엔 우리에게 많이 찾아온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해 아쉬웠다"면서 "후반 역시 초반 20분까지 좋은 플레이를 했지만 이후 급격히 체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반에 선수 두 명을 바꿨는데 교체 멤버가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 어려운 경기를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 “오늘은 1,500m 金이다”

박태환 일본 국제수영대회 2관왕 도전

지난 '세계선수권 탈락' 명예회복 노려

수영 프레올림픽 '2007 일본국제수영대회' 자유형 400m에서 우승한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사진)이 이번에는 자유형 1,500m 금메달에 도전한다.

박태환은 23일 지바 국제종합수영장에서 펼쳐질 자유형 1,500m 레이스에 출격한다. 지난 3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던 박태환으로선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신의 목표인 베이징올림픽 2관왕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대회 자유형 1,500m는 이틀에 걸쳐 예선, 결승을 했던 세계선수권대회와는 달리 하루에 우승자가 가려진다.

경쟁기간이 1주나 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비해 이번 대회는 경기 일정이 나흘 밖에 되지 않는 데다 출전 선수가 14명으로 적어 최근 1년 간 보유 기록으로 23일 오전에는 하위권 6명이 경기를 치르고 오후에는 상위권 8명이 레이스를 펼친다.

작년 말 도하사이언게임 때와 같은 방식이며 순위는 기록으로 매긴다. 박태환은 당연히 오후에 경기를 치르는 걸로 조가 편성됐다.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마테우즈 소리모비츠(14분45초94·폴란드)가 4번 레인을 배정받았고 3위 데이비드 데이비스(14분51초21·영국)는 5번, 박태환은 도하사이언게임 때 세운 아시아기록(14분55초03)을 인정받아 3번 레인에서 뛰게 됐다.

6년 전 이 종목 세계기록(14분34초56)을 작성한 그랜트 해켓(호주)은 세계선수권대

회 때 7위 기록(14분59초59)에 따라 6번 레인이다.

이들은 모두 베이징올림픽에서 박태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기 때문에 더욱 흥미진진한 레이스가 예상된다.

박태환은 사실 이번 대회의 초점을 1,500m에 맞췄다. 세계대회 때에선 탈락할 것을 금메달로 만회하겠다는 의지다.

육상으로 따지면 마라톤인 1,500m 경기력의 필수 조건인 지구력 훈련을 3~4개월간 꾸준히 해왔다. 1만m를 쉬지 않고 해엄치는 훈련도 했고 지난달까지는 1주에 한 번씩 2천m 테스트를 실시하며 거리 감각을 익혀왔다.

웨이트트레이닝을 할 때도 근력만 키운 것이 아니라 근지구력을 끌어올리는 훈련을 병행했다.

박태환은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겠다. 최선을 다해 레이스를 펼쳐 응원해 주시는 국내 팬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며 대회 2관왕을 차지함과 동시에 올림픽 2관왕 가능성을 밝히려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졌다.

한편 박태환은 결전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 지바 국제종합수영장에서 자유형 1,500m에 대비해 훈련했다.

오전 10시30분부터 두 시간 자유형 뿐만 아니라 배영, 평영까지 섞어가며 몸을 풀었고 1,500m를 쉬지 않고 해엄치며 거리 감각을 유지했다. 오후에는 휴식과 스트레칭을 병행하며 컨디션을 가다듬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박태환 자유형 400m 기록 단축 못한 이유

## 기록보다 순위에 더 신경 써

'왜 기록은 오히려 떨어졌을까'

21일 수영 프레올림픽인 '2007 일본국제수영대회' 첫날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의 기록은 3분44초77이다.

이 기록을 놓고 2위에 처지며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은 그랜트 해켓(호주)은 "나는 발전하고 있지만 박태환은 기록이 오히려 늦어졌다"고 비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을 때(3분44초30)보다 박태환의 기록은 0.47초 늦어졌다.

박태환 코칭스태프는 자유형 400m 결승전 직전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렸다.

첫번째는 박태환이 그동안 훈련성과에 맞춰 자기 페이스대로 레이스를 펼치다가 우승은 못하더라도 0.01초라도 자기 기록을 단축한다는 것이었고, 두번째는 옆 레인의 강자들을 꾸준히 견제하다가 막판에 따라잡아 금메달을 따낸다는 것이었다.

결과를 보면 두번째 시나리오가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결승에서 해켓은 초반부터 치고 나갔다. 300m까지 속도를 내 페이스를 흐트러트리면 아무리 박태환이라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전략이었다.

세계선수권대회 때 박태환의 전략은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해켓의 생각도 어느 정도 읽히는 있었다. 초반에 해켓의 스피드를 따라잡는 박태환을 보고 전담 코치인 박석기 감독이 오버페이스를 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했을 정도.

하지만 박태환은 6번 레인의 해켓을 멀리 떨어진 2번 레인에서 근소한 차이로 따라다가 결국 역전을 일궈냈다.

박태환은 이렇게 레이스를 펼쳐도 금메달을 따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초반에 힘을 쓰더라도 근지구력을 충분히 길러와 지치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첫번째 시나리오 대로 기록 단축을 노리지 않았을까.

박태환에 기술자문을 하기 위해 지바를 찾은 김봉조 전 대한수영연맹 경기력향상위원장은 "아직 옆 레인을 신경쓰지 않고 자신만의 레이스를 펼쳐며 기록을 단축할 단계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 최혜라 하루 2번 한국新 갈아치워

접영 200m 2분09초46

한국 여자 수영의 기대주 최혜라(16·서울체고)가 수영 프레올림픽인 2007 일본국제수영대회 접영 200m에서 또 한국신기록을 냈다.

최혜라는 22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지바 국제종합수영장에서 펼쳐진 대회 둘째날 여

자 접영 200m 결승에서 2분09초46에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는 오전 예선에서 자신이 수립한 한국 기록(2분09초49)을 또 다시 0.03초 단축한 것.

하지만 최혜라는 이날 결승에서 전체 8명 가운데 8위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강자들도 있기 때문에 올림픽 결승 진출을 위해서는 기록을 더 단축해야 하는 절실함에 안개 됐다.